

국가예산 확보 막바지 총력

송하진 도지사, 국회서 전해철 민주당 예결위 간사
이춘석 기재위원장·전북지역 의원 등 찾아 반영 건의
국립공공의료대학법 등 지역 현안 법안 조속 통과 요청

전북도(도지사 송하진)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감액심사가 대부분 마무리되고, 증액 및 보류사업 심사만을 남겨 둔 현 시점이 국가예산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막바지 강행군에 돌입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20일 오전부터 국회를 찾아 문화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이춘석 기재위원장, 김관영, 정운천 등 지역 국회의원과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을 방문해 내년도 국

가예산 반영이 필요한 주요 중점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송 지사는 문화상 국회의장을 면담해 서남대 폐교에 따른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국립공공의료대학법 제정) 설립 및 최근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탄소섬유 등 첨단소재에 자립화 및 탄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탄소소재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안 제·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

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에게는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인 신항만이 조기 구축될 수 있도록 부두 2선석 동시 개발비를 포함한 새만금 신항만 건설비 905억원 등 최우선 핵심 3개 사업에 대해 국가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으며, 예결위 증액요청 예산이 최종 반영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증액 동기가 필수임에 따라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 면담을 통해 전북도 중점확보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부탁했다.

이춘석 기획재정부위원회의위원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정운천 의원을 만나서는 씬 없이 국가예산 확보에 뛰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의 노고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상임위 증액 의결에 대한 방어 활동 및 과소·미반영, 부정적 사업에 대해 예결위 단계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10월 21일부터 도·시군 합동으로 국회에 상주하며 현장에서 실시간 대응하고 있다.

특히, 예결소위원회에 전북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송하진 지사를 비롯해 전 건부 공무원 등이 한 톨이라도 더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투입으로 활동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예년에 비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종 예산 확정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2년 연속 7조원 국가예산확보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면서 “정치권은 물론 시군과 협력하는 등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예산 증액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송하진 도지사는 20일 문화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사진 오른쪽) 등 등을 만나 2020년도 국가예산 반영이 필요한 주요 중점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전주~소양 잇는 국도 26호선 420m 구간 도로 확장

소양·진안 방면으로 출퇴근하는 전주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게 됐다. 이는 전주 동부권의 주요 관문이자, 상습 교통정체구간인 국도26호선(전진로) 백사삼거리에서 동전주IC방향 420m 구간이 기존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개통됐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전주~동전주IC~완주군 소양면을 잇는 국도 26호선 전진로 확장공사가 완료돼 교통체증이 줄어

들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국도26호선 전진로 확장공사는 총 사업비 46억원을 투입해 국도대체우회도로와 동전주IC를 연결하는 주요 노선이자 최근 수년간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도로 확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온 해당 구간의 도로를 2개 차로 확장한 것이 핵심이다.

확장구간이 개통되면서 소양·진안·장수 등 도내 동부권으로 출퇴근

하는 시민들과 동전주IC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체증이 줄어들게 됐다.

또한 시는 국도26호선 확장과 함께 국도대체우회도로(산정교차로)와 국도 26호선(전진로)을 연결하기 위한 소로 1-547호선(길이 221m)도 신설해 산정교차로에서 전주방향과 동전주IC 방향의 차량 통행도 분산시킬 수 있게 됐다.

최무결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동전주IC까지 남은 350m 구간도 6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비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우범기 정무부지사와 송성환 전북도지사,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20일 전북도청 행사마당에서 희망 2020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나눔으로 행복한 전북... 희망2020 나눔캠페인 출범

내년 1월 31일까지 모금액 78억1800만원 달성 목표

전북도는 20일 도청 행사마당(청사 서편광장)에서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전북)’이라는 슬로건으로 ‘희망 2020 나눔캠페인’ 출범식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을 시작으로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내년 1월 31일까지 73일간 진행되는 희망 2020 나눔캠페인 기간 중 모금액 78억1800만원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현장모금 행사를 진행한다.

캠페인 기간에 모인 성금은 도내 홀로 거주하는 노인,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정,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 등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생계·의료비, 장학금과 사회복지 시설 지원금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윤정환 삼화건설사 대표가 전북 아너소사이어티 50호 회원으로 가입한 데 이어, 대한노인회 전라북도 연합회에서 2억1800만원, 현대자동차(주) 전주공장에서 1억원의 성금을 기탁해 캠페인 첫날 훈훈함을 더했다.

또한, 우범기 도 정무부지사는 꾸준한 기부활동으로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우리전

설 중기 정찬수 대표, 남원백제약국(대표 박지현), 한국전기 안전공사 추동현, 마음사랑병원 후원회(회장 정운진), 현대옥 프랜차이즈(대표 오상현)에게 전라북도지사 표창패를 수여해 이들의 공로를 치하했다.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소득의 양극화가 깊어짐에 따라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많아졌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캠페인에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모금 참여를 당부했다.

참여하고자 하는 도민은 읍면동 성금모금 담당자 및 공동 모금회 사무국(모금담당자 ☎ 063-282-060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성 기자

미세먼지 35% 이상 저감 목표

전북도, 종합대책 추진... 5년간 1조3173억 투입

전북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총 1조3173억원을 투입한다.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20일 “맑고 깨끗한 공기, 미세먼지 없는 전라북도”라는 비전하에,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35%이상 저감한다는 목표로 향후 5년간 미세먼지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20~2024년)’을 마련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2024년까지 총 1조3173억원을 투입해 농·축산분야 영농폐기물·불법소각 방지, 암모니아 관리 강화, 공공기관 직원경유차 ZERO화 사업 등 6개 분야 30개 사업을 추진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2016년 대비 35%이상(2016년 31→2024년 19 μ g/m³) 낮출 계획이다.

종합대책은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 관리 ▲사업장 배출원 관리 ▲생활부문 ▲민감계층 건강보호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협업 및 소통 강화 등 6대 분야 총 30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3면 - 장정마을 집단 암발병 사태 해결을

4면 - 산단 주변, 살기 좋은 마을로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